

하이테크 시대와 미래학적 발상

鄭榮國*

기술 발달과 사회 변화

일상사가 된 하이테크의 발달

21세기 사회를 이야기할 때 흔히 기술, 특히 하이테크의 발달에 그 초점을 맞추는 경향이 있다. 두말할 나위없이 현재의 우리는 엄청난 하이테크(high-tech)의 발달을 목격하고, 그 성과를 실생활에서 활용하고 있다. 컴퓨터의 발달과 자동화 시스템에 대한 이야기는 이제 옛날 말처럼 들린다. 공장에서는 각종 자동화 시스템이 인간의 육체 노동을 대신해 주고 있고, 가정에서는 누구도 그 기능을 다 활용할 수 없을 정도의 다양한 기능을 갖춘 각종 전자 제품들이 구비되어 있다. 교통·통신·신기술의 발달은 지리적 공간의 개념을 완전히 바꾸어 놓고 있다. 매일 매일 쏟아지는 '신소재 혁명'이니 '유전 공학의 개가'니 하는 것들도 이제는 그렇고 그런 뉴스로 여겨질 정도다. 불과 100년 전에는 상상도 할 수 없었던, 또는 공상 과학 소설에서나 그려봄 직했던 것들이 이제는 우리 생활의 한 부분으로 되어 있고, 혁신리가 「멋진 신세계」란 공상소설에서 그리고 있던 것들이 하나씩 현실화되

어 가고 있다.

현재까지의 과학 기술 발달 과정을 돌이켜볼 때, 비전문가라도 21세기는 엄청난 하이테크의 시대가 될 것으로 쉽게 짐작할 수 있다. 그리고 많은 미래학자들은 이러한 기술 발달이 인류에게 풍요와 행복을 약속해 줄 것이란 낙관적 비전을 제시하고 있다. 실제로 우리는 매일 매일의 생활에서 다양한 첨단 상품들을 활용할 때마다 이같은 미래학자들의 낙관적 비전에 동의하게 된다. 그만큼 현재의 우리 삶은 그 어느 시대의 인류보다 풍요롭고 편리한 것임에 틀림없다.

하이테크를 요구하는 하이테크 시대

과연 하이테크 시대가 우리에게 행복을 가져다 줄 수 있을까? 1970년대 초 박정희 정권이 유신 체제를 추진하면서 '마이 카 시대, 번영의 80년대'라는 장미빛 비전을 표방했던 적이 있다. 당시 부인과 아이들의 환송을 받으면서 변쩍이는 자신의 승용차를 타고 출근하는 모습을 담았던 홍보 만화를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행복을 떠올리지 않았던가? 우리 사회에서 '마이 카 시대'가 실현된 것은 이미 오래 전의 일이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행복한가? 오히려 더 많은 인간 소외와 스트레스

* 한백연구재단 책임연구원, 연세대학교 정치외교학과 정치학 박사, 비교정치 전공.

를 경험하고 있지는 않은가?

미래학자 다니엘 벨은 그의 저서 「정보화 사회와 문화의 미래」에서 인간이 기술을 추구하고 자연을 개조하는 호모 파베르(homo faber)일 수밖에 없는 것은 모든 생명체 중에서 인간만이 '자연 상태'로는 자연에 적응할 수 없다는 단순하고도 놀라운 사실 때문이라고 말한다. 하이테크 역시 보다 나은 생존을 위한 인간들의 끈질긴 노력의 산물이다. 그러나, 문제는 하이테크의 발달 자체가 인간의 행복을 보장해 주지는 않을 뿐만 아니라, 이제는 오히려 인간이 자신들의 개발한 기술에 의해 더 많은 인간 소외를 경험하는 위기에 직면해 있다는 점이다.

따라서 존 네이스비트는 「메가트랜드 2000」에서 하이테크 사회일수록 보다 인간적인 하이터치(high-touch)를 요구한다고 주장한다. 고도로 기술화된 사회에 대해 인간은 자신의 인간됨을 확인하기 위해 '인간성 회복'을 지향하게 된다는 것이다. 우리가 천리안이나 하이텔과 같은 컴퓨터 정보 통신망을 통한 편리한 쇼핑 시스템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굳이 형형색색의 사람들이 모이는 복잡한 시장 골목에서 이것 저것을 둘러보면서 흥정하는 것을 즐기는 것은 바로 이 같은 하이터치에 대한 갈증 때문이라 할 수 있다. 하이테크 시대 인간의 행복은 기술의 인간화, 즉 하이테크와 하이터치의 균형을 어떻게 이루하느냐에 달려 있는 것이다.

보다 절실한 것은 시대적 변화에 적응하는 것
기술의 인간화, 하이테크-하이터치의 균형

회복을 논하기 이전에 우리가 해결해야 할 보다 우선적인 과제가 있다. 그것은 하이테크가 초래할 사회적 변화에 우리가 어떻게 적응할 것이냐 하는 문제이다. 기술의 발달은 인간이 그것을 충분히 '인간적으로 요리'하기 이전에 먼저 인간 사회를 변화시켜 왔기 때문이다. 특히 하이테크 시대는 그 이전의 어떤 시대에도 경험해 보지 못했던 빠른 속도로, 그리고 사회 모든 영역을 전면적으로 변화시키고 있기 때문에 이에 적응하지 못하는 자를 시대의 낙오자로 전락시키고 있다. 최근에 우리 사회에서 미래 서적이나 정보화 사회에 관한 수많은 서적들이 불티나게 팔리고, 그와 관련된 강연이나 토론회가 하루에도 몇 건씩 개최되고 있는 것은 시대적 변화가 부각하고 있는 이러한 위기 의식에 대한 반응이다.

그렇다면, 하이테크는 어떠한 사회적 변화를 초래할 것인가? 그리고 이에 적응하기 위해서는 무엇을 준비해야 할 것인가? 그동안 많은 미래학자들이 21세기 추세 변화에 대해 많은 주제들을 제시해 왔으나, 보기에 따라서는 너무나 거시적이거나 아니면 하나 하나 분절된 것이어서 쉽게 이해하기 어려웠던 것이 사실이다. 미래학 서적과 강연들에서는 시대 추세에 맞게 '발상 전환'을 시도하라고 하고, 또 스스로 생각해 보아도 무언가 준비하지 않으면 안될 것 같은 기분이나, 솔직히 어디서부터 어떻게 시작해야 하는지 막연하기 짝이 없다는 것이 오늘을 사는 우리들이 공통으로 지니고 있는 심정이다.

이런 점에서 다음에는 하이테크 시대의 특징으로 분류되는 전문화, 정보화 시대의 내

용을 추적해 보면서, 그러한 변화가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는지를 전문화 사회와 페니니즘 시대의 도래라는 두 현상을 상정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발상의 전환’과 ‘미래학 적 사고’를 위한 어설픈 연습을 같이 해보자는 것이다.

전문화의 시대

‘모듬 요리’를 싫어하는 하이테크 시대

일반적으로 기술의 발달은 사회적 기능의 분화를 가져온다. 기술의 발달이란 기술의 세분화와 고도화를 의미하며, 이는 곧 새로운 기술과 관련된 업무들이 세분화됨을 뜻한다. 새로운 기술의 발달은 곧 새로운 기술을 활용하는 전문성이 요구되는 새로운 업무와 직업을 창출하게 되는 것이다. 불과 100여 년 전 농업 경제 시대에 수백개에 지나지 않던 직업의 수가 오늘날 수만개에 이르게 된 우리사회의 경우를 되돌아 보아도 쉽게 알 수 있다.

이런 점에서 하이테크 시대는 직업의 분화와 전문화가 고도로 진행되는 그러한 사회를 창출할 것이다. 전문화의 시대, 이것이 하이테크가 초래하는 가장 중요한 사회 변화중의 하나이다. 이는 사회적 역할의 전문성을 지니고 있지 못한 사람은 이등 시민으로 전락하게 됨을 뜻한다. 예컨대, 자동화 시스템의 작동 스위치를 누르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는 역할이지만, 자동화 시스템 자체의 점검이나 정비 는 그 분야에 관한 전문적 지식과 경험을 지니고 있는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것이다. 즉 ‘누구나 할 수 있는 역할’은 쉽게 대체될 수

있지만, ‘그만이 할 수 있는 역할’은 대체될 수 없다.

이는 조직에 대한 충성과 업무에 대한 성실성만으로도 직장과 승진을 보장받던 그러한 ‘편안한 시대’가 지나감을 의미한다. 자신만이 수행할 수 있는 하나 이상의 독특한 전문성을 갖추고 있지 못한 사람은 조직내에서 그만큼 쉽게 대체될 수 있는 것이다. 자신만이 수행할 수 있는 전문성이란 딱히 기술적인 측면을 말하는 것은 아니다. 그것은 컴퓨터 프로그래밍과 같은 고도 기술과 그 활용 영역에서의 전문성으로부터 문화적 영역, 예컨대 그림이나 음악 감상과 같은 것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영역에 걸친 것일 수 있다.

문제는 이제 자신의 전문적 영역없이 각 분야에 대해 이것 저것 조금씩 알고 있는 이른바 ‘모듬 요리’의 시대는 끝나간다는 사실이다. 학교에서 전과목에 걸쳐 고른 점수를 받아 평균점이 높은 학생보다 평균점은 높지 않지만 어느 특정 과목에서 두각을 나타내는 학생이 더 유능한 그러한 시대가 열리고 있는 것이다.

임시위원회의 활성화

사회 각 부문의 전문화가 확산되면, 모든 사회적 현안들이 두 개 이상의 전문성이 결합된 문제로 복잡화되게 된다. 컴퓨터 범죄를 생각해 보자. 이러한 문제는 컴퓨터에 대한 고도의 지식과 범죄 처리에 대한 지식 및 경험이 동시에 결합되어야 해결 가능한 것이다. 이같이 복잡화된 현안들의 분출은 이전의 산업 사회 조직의 특징이던 경직된 위계적 조직

원리가 더 이상 효용을 지니지 못하게 한다. 복잡화된 현안들은 두 개 이상의 전문성을 동시에 지닌 복잡화된 조직을 요구하며, 나아가 수 없이 다양하게 분출되는 현안들에 대처할 수 있는 전문성을 갖춘 조직을 상시적으로 가동시키는 것 자체를 불가능하게 한다. 이에 따라 00부, 00부씩으로 이미 그 기능이 고정되어 있는 산업 사회의 경직된 조직으로는 이러한 현안들에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없는 것이다.

따라서 복잡화된 현안들에 능동적으로 또한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그에 적합한 필요한 전문성들을 조직하고, 재조직할 수 있는 보다 유동적인 새로운 조직 원리를 필요로 한다. 이것이 곧 임시위원회(ad hoc committee)와 같은 조직의 활성화를 초래한다. 필요한 시기에 필요한 전문성을 갖춘 인물들을 중심으로 한시적으로 구성되며, 상황의 변화에 따라 조직 구성원을 융통성있게 조정할 수 있는 그러한 조직이다. 이미 우리 사회의 대기업들에서 채택되고 있는 00팀이란 조직은 이 같은 조직 원리의 변화가 시작되었음을 알려준다.

경쟁의 전문화

전문화 시대는 조직 원리의 변화와 마찬가지로 시장 경쟁에서도 중대한 변화를 초래하게 된다. 산업 사회의 생산 원리가 규격화된 상품의 대량 생산과 대량 소비였다면, 전문화 사회의 생산원리는 특화된 상품의 제한된 생산과 집중 소비의 형태가 될 것이다. 사회적 분화와 전문화의 증대는 소비자들의 기호와

요구도 분화시킬 것이기 때문이다. 지식 상품, 소비재 상품, 레저 상품 등 모든 상품은 기능에서 부터 디자인까지 구매 대상으로 파악하고 있는 소비자들의 분화된 기호와 요구에 부응하는 것이어야 하며, 그들을 설득시킬 수 있는 전문화된 설득 구조를 지니고 있어야 경쟁에서 살아남을 수 있게 된다.

그러므로, 동일한 상품이라도 예상 소비자들의 성별, 연령별, 지역별로 디자인과 색상을 달리할 필요가 있다. 이런 점에서 우리가 국제화 시대를 준비한다면, 그것은 세계 각 지역 주민들이 좋아하는 색상과 무늬가 차이가 난다는 사실에 착안하여 지역별 색상과 무늬 지도를 작성하는 것도 그 하나에 속할 것이다. 전문화의 시대는 규격화된 '표준 시대'가 지나감을 의미하며, 이는 시장 경쟁도 '량의 경쟁'에서 '質의 경쟁' 시대로 변화됨을 뜻한다. 그리고 이때의 질이란 단순히 상품의 품질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예상 소비자들의 기호와 요구에 부응한다는 그러한 측면을 포함하는 것이다.

연고주의적 연대에서 전문성 위주의 연대로

그동안 우리 사회를 지배해왔던 사회적 관계망의 핵심 고리는 한마디로 연고주의였다. 혈연, 지연, 학연 등의 1차적 연고가 모든 사회 관계의 기저를 이루고 있었던 것이다. 그러나, 이 같은 연고주의적 연대는 사회적 기능의 분화가 심화되는 전문화 시대에는 그 결속력이 쇠퇴될 수밖에 없다. 연고주의적 연대로 대처하기에는 사회가 너무나 전문화되어 가기 때문이다.

따라서, 사회의 전문화 양상은 당연히 전문성 위주의 소모임을 활성화시키면서, 각 개인의 사회 생활 관계망을 전문성 영역 위주로 변화시킬 것이다. 사회적 유대의 기반이 '같은 출신'에서 '같은 사회적 역할'로 대체되게 되는 것이다. 현재 우리 사회에서 서서히 나타나고 있는 전문성 위주의 소규모 동호인 모임의 활성화는 이러한 추세 변화의 단초라고 할 수 있다.

물론, 이것이 분화되고 전문화된 사회에서 '인간적 체취'를 그리워하는 정서가 사라진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하이테크 사회가 하이터치를 요구하듯이, 전문화된 사회에서 '인간적인, 너무나 인간적인 만남'에 대한 욕구가 상대적으로 강화될 수 있다. 그러나 그것은 더 이상 사회적 관계망의 핵심은 아니다. 그것은 '그리워 질 때 이따금씩 찾아가는 선술집'과 같은 것이다.

페미니즘의 시대

본격화되는 여성들의 사회적 진출

사회적 분화와 전문화의 증대는 여성들의 급속한 사회 진출을 초래할 것이다. 사회적 분화의 심화에 따른 사회적 팽창, 즉 새로운 직업군의 확장은 그에 소요되는 사회적 기능과 역할을 채워줄 더 많은 사회 구성원들의 사회 활동 참여를 요구하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사회적 공간의 팽창에 따른 사회의 흡입력이 가정에 있던 여성들을 빠른 속도로 사회로 빨아들이게 된다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전문화의 증대는 남성 위주의

육체적 노동을 중심으로 하던 산업 사회의 사회 활동 내용을 급격히 쇠퇴시키고, 다양한 정보 기기를 활용한 이른바 소프트 웨어 부문의 활동을 강화시킬 것이다. 여성들은 바로 이러한 소프트 웨어 부문에서 남성들보다 더 섬세하고, 창의적인 역량을 발휘할 수 있다. 이런 점에서 여성들의 사회적 진출은 단순한 하급 기능직이 아니라 보다 전문화된 직업에 까지 폭넓게 진행될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여성 시대'란 말은 우리 사회에서도 더 이상 사전 속의 말은 아니다. 그것은 현재의 남성들이 이미 체험하고 있거나, 머지않아 곧 체험하게 될 또 하나의 시대적 추세인 것이다.

추억 속에 묻히는 남성들의 '좋았던 시절'

여성들의 사회적 진출은 우선 양적으로 직업을 지닌 여성들의 숫자가 급속히 늘어난다는 것을 의미하며, 이는 곧 관리직 여성들의 증대를 요구하게 된다. 남성 위주의 조직이 여성들의 활동 증대로 중대한 도전을 받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경향은 사회적 팽창에 따른 직업의 분화로 여성들의 독자적 활동 영역이 넓혀지며, 여성들의 전문적 활동이 강화된다는 점에서 더욱 그러하다.

이러한 변화는 곧바로 여성들에 대한 차별적 대우와 관행에 대한 도전을 본격화시킬 것이다. 즉 여성들의 권익 신장을 위한 여성 조직 및 여성 운동의 활성화를 예상할 수 있다. 이제 여성들은 남성들의 편의 위주로 짜여진 사회 질서와 규범, 그리고 관행에 순응하기보다 자신들의 개성과 역량을 공평하게 발휘할 수 있는 새로운 사회 질서와 규범을 요구하게

되는 것이다.

동시에 사회적 역할이 증대된 여성들은 사회적 제쟁점들에 대해서 자신들의 독자적인 견해를 표방하고, 자신들의 요구를 반영시키기 위해서 독자적인 역량을 배경으로 본격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게 될 것이다. 남성들이 여성들의 협조없이도 일을 진행시킬 수 있었던 그러한 '좋았던 시절'은 이제 '한 때의 추억'으로 사라져가고 있다.

1 자녀 가정의 확산과 이혼율의 증대

사회 활동에 참여하는 여성들이 증대되면서 여성들의 사회적 위상뿐만 아니라, 기존의 성의 역할과 가정 생활 양식에서도 중대한 변화를 초래하게 될 것이다. 가장 먼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 1 자녀 가정의 확산이다. 자녀 양육은 모든 인간의 최대 행복중의 하나이나, 그 부담이 우선적으로 여성들에게 주어진다는 점에서 여성들의 사회 활동을 제약하는 최대의 요인이기도 하다. 자녀 양육은 여성들의 사회 활동과 상호 반비례 관계에 있는 것이다.

사회의 팽창에 따른 여성들의 사회 진출 증대는 그만큼 여성들의 자녀 양육 부담에서 벗어나려는 경향을 강화시킬 것이 틀림없다. 그리고 그 결과로서 1 자녀 가정의 확산을 예상할 수 있다. 1 자녀 가정의 선택은 '가족 계획 정책'에 부응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자녀를 갖는 기쁨과 사회 활동의 욕구를 동시에 충족시키는 최적의 방정식이기 때문이다.

다른 한편으로 강화된 여성들의 사회적 역할과 발언권은 기존의 남녀 관계에 중대한 영

향을 미치게 마련이다. 즉 가정에서 더 이상 남성 우위의 남녀 관계가 지속될 수 없게 될 것이다. 독자적인 생활 기반이 취약한 '연약한 여성들'은 남편들의 생활 방식과 의견을 추종할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이제 독자적인 사회적 영역과 물질적 기반을 갖춘 여성들이 남편들의 '부당한 요구'에 순응하기를 기대할 수는 없다. 이제 남성들은 가정에서도 자신의 동의없이 성관계를 강요한다고 남편의 '남성'을 거세하는 '무서운 여성'은 아닐지라도, 자신의 의사와 배치되는 의사를 강요하는 남편에 '굳굳히 맞서는 여성'을 상정해야 하는 것이다.

문제는 오랜 남성 우위의 문화에 젖어 있는 남성들의 의식 변화가 여성들의 사회적 조건과 의식의 변화를 따라가지 못한다는 데 있다. 기술 변화에 문화가 따라가지 못하듯이, 사회 변화와 남성 의식 사이에 일종의 문화 지체 현상이 나타나는 것이다. 너무나도 오래도록 익숙하게 살아온, 그리고 자신에게 편안하고 유리한 삶의 방식을 남성들이 자발적으로 변경하기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따라서, 남녀 관계의 규범에 대한 인식의 차이는 가정내 부부간의 갈등을 초래하는 중대한 요인으로 부각될 것이며, 이러한 경우 곧바로 이혼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독자적인 생활 기반을 확보하지 못한 여성들이 남편들의 '횡포'를 개념으로 인내하던 그러한 시대가 지나가고 있기 때문이다.

미래는 준비하는 자에게만 미소짓는 여신

이 글은 본격적으로 미래적 추세를 논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다. 단지 미래학적 추세 변화에 맞는 발상 전환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하이테크 시대의 두 가지 내용, 즉 전문화 사회와 패미니즘 시대를 상정하여 몇가지 초보적 단상들을 중심으로 예시해 본 것이다.

21세기의 하이테크 시대의 도래는 인간 생활의 모든 부문에 걸쳐 심대한 변화를 초래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며, 그것의 표현으로 '전문화의 시대,' '정보화 사회'니 하는 용어들이 제시되고 있다. 또한 그러한 새로운 시대는 인간들에게 풍요와 행복을 가져다 줄 것이란 낙관적인 비전이 팽배해 있다. 그러나, 기술의 발달이 인간 삶에 풍요를 가져다 줄 수는 있지만, 결코 행복을 약속해 주지는 않는다. 오히려 인간들은 '인간적인, 보다 인간적인 체취'를 그리워 하는 그러한 시대를 맞을 지도 모른다.

21세기 사회가 인간들에게 행복을 약속해 주던 않던 간에 거대한 시대적 조류를 변화에 직면해 있는 오늘의 우리에게는 이 같은 새로운 조류에 어떻게 적응해 갈 것인가가 더 중요한 문제로 부각되고 있다. 미래학적 발상 전환은 바로 이 같은 예상되는 시대적 변화에 효과적으로 적응하기 위한 발상법을 의미한다. 그리고 본 글에서 예시된 발상이 어느 정도로 신뢰할 만한 것인가는 알 수 없다.

그러나, 한가지 분명한 것은 '21세기'와 '미래'라는 용어는 이미 시대의 유행어가 되

어 있으나, '미래학적 사고'는 아직도 우리에게 생소하고 혼란스러운 발상법이라는 것이다. 미래의 상황은 무수한 변수들이 서로 얽혀서 상호 작용하는 과정의 결과로 나타나는 것인 만큼, 그러한 변화를 예측하고 그에 효과적으로 적응한다는 것은 결코 쉽지 않은 일이다. 그래서 미래학적 예견은 아무리 그 예측의 합리성이나 과학성을 주장해도 마치 무슨 점괘를 뽑는 것 같은 인상을 지우기 어렵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미래학적 사고를 훈련하고 추구하지 않을 수 없다. '미래'라는 용어에 내포되어 있는 '희망'을 현실화하고자 하는 노력을 포기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리고 '희망의 현실화'는 미래학적 사고와 준비를 추구하는 자에게만 성취될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미래는 그 자체로서 장미빛이 아니라, 오직 준비하는 자에게만 미소짓는 여신과 같다고 할 수 있다. ♣